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 되는 것에
마음을 줍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궁극적인 생명을 통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알게 된
신자으로써 어떤 통령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를 힘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정적일
뿐이며 궁극적이지 못함을
잊지 않고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참된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현실과 허상

신윤식

죽음을 앞에 두고도
돈이 좋다고
그렇게 말할 것인가
세상은 다 허상이라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할 것인가
세상은 다 허상 속의 삶이라네.

숨이 가빠지고
곧 눈을 감으면서도
세상이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인가
세상은 다 허상의 꿈이라네.

그래서 우리는
허상의 세계를 벗어나
참된 현실을 바라본다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5.26

발행호수 제21권 21호

예 수님께서 바리새
인들과 율법 교
사들을 향해 화 있을진
저 라는 저주의 말을 외
치는 사이에 수만 명의 무
리가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어디에서 왔
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님 한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 노리는 자
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하고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수만 명 무
리의 모임을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지 않으신 것
은 물론이고 그 무리들을 가르쳐서 좀 더 많은 무리를
모으시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만약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의 무리가 모
였다면 저는 그 무리를 보면서 나의 설교 능력에 뿌듯
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을 것이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여
든 수만 명의 무리는 관심에 두지 않으신 듯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는 수만 명의 무리가 관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모여든 무
리의 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은 예수님과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나아가는 길이 다
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를 마치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것처럼 여깁니다.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니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무
리의 수에 관심을 두면서도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합니
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천
국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오전설교
눅 12:1-5

외식을
주의하라

세상에 천국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영광된 나라가 천국이고, 세상은 심판이
임하여 사라지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천국을 마음
에 두고 소망을 하는데 그런 마음에 파고들어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할 세상의 것이 있겠습니까?

무리의 수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많은 것이 힘이 되는
세상 가치관에 따른 것입니다.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
만 명이 예수님께로 모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관심이나
돌까요? 제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그들 모
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의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
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그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라”** (요 6:39)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않고 찾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일은 애당초 예수님과 상
관없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찾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도 단
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람을 찾고
자 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도 자기
사람을 찾고자 하는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기 사람은 말씀에 의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면서 **“나야 말로 천국에는 가당치 않다”** 는 것을 알
게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림과 용서의 은혜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율
법 교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외치시는 예수
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
을 **“화 있을진저”** 에 해당되는 존재로 여기고 예수님
께 나오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
다. 이들 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수는 의
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수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해도 정작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는 세상을 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여기는 것이야 말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선의 대표자로 바리새인을 내세워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속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속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겉을 보기 좋게 꾸면서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로 말씀하는 것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11:39)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자신의 속은 보지 않고 겉만 깨끗이 하여 타인에게 그럴듯한 존재로 보이고자 했었고 그것을 외식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식을 왜 누룩으로 표현 하셨을까요? 그것은 외식과 누룩이 서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룩은 발효제로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의 속성을 외식의 속성과 공통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이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기에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여든 수만 명의 무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은석교회에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들면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모인다는 것 때문에 은석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힘이 되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모여든 수만 명의 무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여들었다면 예수님의 공식 제자인 자신들은

수만 명의 무리들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리새인의 외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과시욕이라는 것이 있고, 과시욕으로 인해서 기회만 되면 자신을 부풀려 대단한 존재로 부각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이며 제자들 또한 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교회 규모에 관심을 두는 것이 외식이며 사람의 수에 관심을 두는 것도 외식입니다. 타인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외식이며, 도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인품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도 외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외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제대로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속이 아니라 겉만 바라봤기 때문에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자기 속을 보지 않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외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속을 제대로만 보게 된다면 걸 행동이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다 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라도 자기를 제대로 본다면 사람 수 때문에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속을 보기보다는 늘 겉에 신경을 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을 보면서 외적인 조건이 어떻게 스스로를 저주가 마땅한 자로 여기며 예수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것이야 말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며 이들이 예수님이 찾고자 하시는 천국 백성에 해당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이 본문과는 전혀 다른 문맥,

다른 의미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마태에서는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나가서 선포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집니다. 하지만 누가는 바리새인의 외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경고로 주어집니다. 더러운 것을 감추고 깨끗한 것처럼 행하지만 결국 감추어둔 모든 더러움이 낱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의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는 말씀도 2절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은밀하게 말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 때에는 사람이 감추고자 한 모든 더러움과 악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더러움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결국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외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말씀한 대로 인간은 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집착한 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누구도 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 4:12)라는 말씀처럼 우리 속 깊숙이 감추어 두고 아무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여기며 깨끗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3)는 말씀과 같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그 모든 수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수치를 미리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

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가려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낱알이 드러날 수치와 더러움을 미리 드러내고 보게 하기 위해 말씀이 있는 것이고,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을 보면서 자신이 저주에 속한 자며 심판이 마땅한 자임을 알고 주를 바라보는 이것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즉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5절에 보면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분이요, 이 권세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가차 없이 행해질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풀려지고 보여지는가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 해도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더러움과 수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마음을 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자기 속의 실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을 보게 됨으로 예수님만을 크신 분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가 천국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공허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

주일오우설교
시 116:1-19

은혜와 보답

(120장 5.5일 설교)

편 형편에 처해있다고 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자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이 믿음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 긍휼과 자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믿음이 있는 신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도 이런 믿음에 있는 저자가 고난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저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8절에서는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라고 말하고, 10절에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라고 말함으로 저자의 현실적인 고난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저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1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지금부터 말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자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환난과 슬픔에 처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며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절)**는 내용을 보면, 저자가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환난과 슬픔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고 기도하

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건져 달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육신과 또 다른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간은 단순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는 기도는 환난과 슬픔에 처한 고통의 형편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건히 붙들려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신자의 기도입니다.

저자의 믿음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환난과 슬픔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과 슬픔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믿음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환난과 슬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한 형식적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고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신자의 찬송과 감사는 주어진 형편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날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를 찬송과 감사의 세계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일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큼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이 은혜는 환난과 슬픔의 처지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함께 하시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지키시고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참된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힘든 환경에서 건짐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슬픔이라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응답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환난과 슬픔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은혜를 보답한 적도 없고 보답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붙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후대 받을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후대보다는 심판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후대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일 때 이 믿음으로 인해 환난과 슬픔에서도 평안함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평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러한 평안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를 나타내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의 한 방편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살기 위해 믿는다면 삶을 위해 많은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받기 위해 믿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에 평안과 감사와 찬송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답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슬픔도 은혜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신자는 환난과 슬픔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수요일설교

렘 31:15-22

라헬의 애곡

(78장 4.24일 설교)

하 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일이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때문입니다. 우

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보다 지금 현재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편하게 잘 사는 것이 관심의 전부입니다. 자연히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세상의 마지막을 외면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떻게 상관없이 세상 마지막의 순간에 서게 되면 모든 인간은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집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지랑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부요와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 참된 복이며 무엇이 저주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으로 탄식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마지막 때에서 현재의 삶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현재의 삶은 지나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우리를 다가오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삶은 지나가는 허상이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마지막 때가 실상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현재의 삶에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실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마지막 때에 생명으로 들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면 현재 어떤 것을 누린다고 해도 모두 쓸데없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생명으로 향하고 생명의 존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 징벌 받은 에브라임, 즉 북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대적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라미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미는 유다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집결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라미에는 끌려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라헬의 애곡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헬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이들은 모두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유다에 속한 두 지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라헬은 북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머니로 지칭되는 것이고, 또한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기에 고통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통곡을 라헬의 애곡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 2:17-18절에서도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해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인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두 살 아래의 사내아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인한 야곱의 통곡이 있었을 것이고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애곡에 대해 하나님은 **“네 울음 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네 일에 샅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는 것 때문입니다. 네 일에 샅을 받는다는 것은 자식이 고통을 받고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애곡한 것에 대한 값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라헬의 애곡에 대해 하나님이 값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끌려간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작정이기때 라헬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고 합니다. 결국 무엇으로도 위로 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리라’ 는 말씀은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는 하셨지만 버리신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현재의 삶이 비록 고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돌아오리라’ 는 뜻을 가지고 일하신 것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눈물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셔서 과거의 편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면 라헬의 애곡은 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의미까지 알아야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으며 뜻을 세우시고 인도하셨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고통 가운데서도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돌아온 후에 누우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므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의 치욕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욕됨입니다.

어렸을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철없던 시절을 뜻합니다. 그때의 잘못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신들에게는 치욕이며 부끄러움이었다는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기를 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같은 사랑으로 자신의 치욕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창자가 들끓을 정도가 되신 것이고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애곡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것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랑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의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위로가 되어 눈물과 슬픔이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무의미한 현재는 없습니다. 모든 삶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0장

교 독 : 71(사55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284장

성 경 : 눅 12:1-5

말 씬 : 외식을 주의하라(61)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21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6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0장

기 도 : 장영옥 권사

찬 송 : 411장

성 경 : 시 119:1-8

말 씬 : 여호와와 율법(12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0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82강)

■ 교회소식 ■

1.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배당 대청소를 합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조길옥 집사

이단 ㉔

성경이 신자를 죄 사함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이 그 목표가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알게 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롬 7:19,20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는 바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늘 죄에 끌려가는 자신을 두고 탄식한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신자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보면서 인간의 본질인 사망이라는 자기 실체를 실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문에 구원 받은 신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구원파의 구원론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이요한 구원파의 구원론은 헬라적 이원론 사상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하여 영혼만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육체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기에 육체의 구원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구원을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으로 구분함으로써 신자의 거듭남은 영혼의 구원일 뿐이며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통제하여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요한은 ‘구원의 세 가지 의미’ 라는 그의 글에서 ‘영혼과 육신과의 싸움 중에서 육신의 세력이 강해서 육신의 세력에 사로 잡혀가는 영혼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주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은 기회만 있으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육신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바울도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다.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인체 하리라” (잠29:21) 말씀의 종은 육신을 뜻하기도 한다. 육신을 자유롭게 두면 아니 되며 육신은 엄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요한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가령 갈 5: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하는데, 이요한은 이 구절을 육체와 영을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육체와 영은 서로 거스르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으로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육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육체와 영을 구분하지 않는다. 영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육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한 것이다. 롬 8:9절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는 말을 하는데, 이 역시 육신과 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육신으로 말하는 것이다.